

미얀마 문화체험 보고서

201421817 행정학과 김솔아

I. 서론



국제학부에 해외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라는 좋은 기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작년까지 국제학부 복수전공도, 부전공도 이수하고 있지 않아 항상 신청해보지도 않은 채 놓쳤던 기회였다. 그러나 이번 학기에 국제통상학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본격적으로 국제통상학 복수전공을 마음먹은 뒤, 미얀마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신청하게 되었다.

미얀마는 사실 잘 모르던 국가였고, 그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더운 나라라는 정도만 알고 있던 나라였다. 학교 수업 중에도 일본이나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다뤘었고 미얀마에 대해서는 좀처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국제학부에서 마련해 준 이번 미얀마 해외 문화체험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통해 잘 알지 못했던 미얀마에 대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을 뿐더러 미얀마의 한국 대사관, KOTRA 강연, 같이 동행해주신 교수님들의 말씀들을 통해 미얀마라는 국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얀마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국가라는 점에서 미얀마의 훌륭한 잠재적 가치에 대해 깨닫게 되었던 시간이었다.

II. 첫째 날

첫째 날,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약 6시간의 비행을 거쳐 도착한 미얀마 양곤 공항에서 처음 느낀 것은 굉장히 깔끔하고 공항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 나는, 부끄럽지만 무의식적으로 미얀마는 아직 발전이 덜 된 나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 인식은 깨졌고 나의 잘못된 생각을 반성하게 되었다.

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마치고 호텔로 이동하기 위한 버스를 타러 밖으로 나왔을 때 미얀마의 날씨를 실감하게 되었다. 덥고 습한 공기가 흠 끼쳐와 '역시 한국과는 다르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이 미얀마의 기후는 고온다습한 열대 몬순기후라고 한다. 연평균 기온은 약 27.4°C에 다르고, 연평균 강우량은 약 2,513mm라고 한다. 미얀마의 우기는 과거에는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이었으나, 1970년대 말 이후 환경이 변하면서 지난 30여 년간 5월 말에서 9월 중순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한다. 우리가 방문한 시기는 6월 말로, 우기에 속하는 때라 강한 햇빛과 폭염은 피할 수 있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비

가 내리고, 습하고 더운 기운은 피할 수 없었다. 다행히 우리는 우기에 방문했지만 우기가 아닌 여름의 미얀마는 40°C가 넘어가는 기온이라고 한다. 첫날에는 덥고 습한 기운에 숨 쉬기가 힘들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곧 미얀마의 날씨에도 적응되어 날씨 때문에 힘든 부분은 없었다.

그렇게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출발해 15분 정도를 달려서 호텔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굉장한 호의와 친절을 받을 수 있었다. 불교의 나라답게 미얀마 국민들 모두 친절하고 순수한 모습을 잃지 않았고 호텔 직원 분들 역시 우리를 웃으며 반겨주어서 굉장히 이번 문화체험에 대해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다. 호텔 역시 깔끔하고 넓었으며 서비스도 굉장히 좋아서 학교 측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첫날은 도착했을 시간이 한국과 2시간의 시차가 나는 미얀마 현지시각으로 11시가 다 되어가는 밤이었던지라 다들 피곤을 느꼈고 별 다른 일정 없이 학생들과 가이드 선생님, 교수님과의 간단한 미팅을 갖고 모두 각자의 숙소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다.

Ⅲ. 둘째 날



둘째 날은 호텔에서 아침식사를 마친 후 9시부터 일정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일정은 미얀마 대사관에 방문한 것이었다. 주 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은 한-미얀마 간의 우호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정부협력 뿐 아니라 문화, 학술, 체육 등 다방면에서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경제 협력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미얀마는 1975년 5월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이후 꾸준히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

다. 특히 한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를 계기로 인적, 문화적 교류 또한 활발해져 이를 통해 경제, 통상 측면에서도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한다.

미얀마 대사관에서는 직접 미얀마 현지를 경험하고 여러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대사관 직원 분에게서 깊고 자세한, 또한 생생한 미얀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미얀마의 지리와 기후, 인구와 종교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미얀마의 정치, 역사, 사회, 경제, 그리고 대사관의 핵심 역할인 미얀마와 한국과의 교류에 대해서도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대사관에서 강조했던 점은 미얀마는 '밝은 미래의 나라'라는 것이었다. 미얀마는 오랜 역사와 전통, 불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찬란한 문화를 지닌 나라이며 영토 또한 한반도 전체의 3배에 달하는 국가이다. 이 넓은 영토 안에는 천연가스, 광물, 석유, 쌀, 목재 등의 천연자원이 매우 풍부하고 미얀마 인구의 대부분이 청년인구, 즉 생산 가능 인구에 속해 인적 자원과 천연 자원을 바탕으로 한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국가라고 한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미얀마 시장을 주시하고 있으며 직접 미얀마에 들어와 성장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실 미얀마 정부와 법, 환경, 문화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아

작은 해외 기업에 대한 제약이 많은 터라 활발하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우 기업이 들어와 멀티플렉스 형식의 고층 건물을 건설 중에 있다고 한다. 대사관에서도 역시 더욱 활발한 한-미얀마 교류를 위해 힘쓰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의 미얀마의 미래를 기대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다.

사실 미얀마에 방문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얀마가 과거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국가였다는 점, 천연자원과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앞으로 엄청난 성장 잠재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상태였다. 그러나 대사관에서 들은 강연을 통해 미얀마라는 국가의 자연, 역사, 문화 뿐 아니라 경제, 정치적 상황 앞으로 다가올 미얀마의 미래에 대해서까지 폭넓게 알 수 있게 된 좋은 기회였다. 학교에서 마련해 준 기회가 아니었다면 미얀마라는 국가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많지 않았을 텐데 미얀마 현지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들은 정보들은 굉장히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대사관 방문 후 점심식사를 한 뒤 방문한 곳은 시리암 유적지였다. 시리암 유적지의 엘레파야 사원은 물 위의 사원으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꼭 거쳐 가는 의미 깊은 사원이라고 한다. 배를 타고 이동하며 미얀마의 사원들에서는 무릎 위로 올라가는 짧은 하의와 신발을 착용할 수 없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 모두 맨발로 물 위의 사원을 걷는 진귀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불상을 포함해 가이드 선생님께 여러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비가 와서 조금 미끄럽기는 했지만 아름답고 신비로운 사원이라고 생각했다. 시리암 유적지 근처에는 전통 시장들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미얀마 사람들의 삶과 정취를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방문한 곳은 네셔널 빌리지였다. 이곳은 한국으로 치자면 민속촌과도 비슷한 곳이었다. 미얀마의 8개 소수민족들의 주거 형태와 방식을 재연해 놓은 곳으로 전통 가옥들을 보고 들어가 볼 수 있도록 꾸며 놓은 곳이었다. 특이한 점은 전통 가옥 대부분이 지상에서 높게 떨어져 지었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미얀마 사람들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야생 동물과 독충을 피하고 습기를 최소화하고자 만들어낸 주거 형태라고 한다. 미얀마

는 대나무가 풍부하기 때문에 때(Te)라 불리는 대나무 집이 아주 많다. 지붕에는 벌레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야자수 잎이 널리 쓰인다. 미얀마의 기후에 맞게, 대나무와 야자수 잎을 활용해 습하지 않게 통풍이 잘 되는 구조로 가옥을 짓는다고 한다. 꽤 큰 규모의 네셔널 빌지를 체험하면서 우리는 전동차를 탑승해 이동하였다. 이동하는 내내 시원한 바람을 맞으

며 재연해놓은 미얀마 전통 마을의 풍경을 관람할 수 있었다.

첫째 날의 식사는 각각 미얀마 현지식과 수키라고 하는 미얀마 식 샤브샤브를 먹었다. 현지식은 생각보다 한식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저녁으로 먹은 수키는 중국의 휘귀와 같다는 생각을 했다. 입맛에 맞아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다. 첫날의 일정은 이정도로 마쳤고 미얀마 내의 코스트코라고 할 수 있는 창고형 마트에 들러서 간식거리와 미얀마 맥주를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미얀마 맥주는 세계적으로도 꽤 유명하다고 한다. 호텔에 돌아와 미얀마 맥주도 마시고 친구들과 오늘 하루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사진들도 살펴보며 잠들었다.

IV. 셋째 날

셋째 날은 거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아침식사 후 첫 번째 일정은 KOTRA에서 방문해주신 KOTRA 미얀마 무역관 관장님의 강연을 듣는 것으로 시작했다. 아쉽게도 우리가 KOTRA에 직접 방문할 기회는 없었지만, KOTRA의 미얀마 무역관에서 오신 관장님께서 우리에게 KOTRA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해 주셨다.

KOTRA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약자이며, 1960년대 수출 증대와 함께 성장해 온 공공 기관이다. 경기침체타개, 새 기회 창출, 지속가능한 성장을 바탕으로 한 '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화'를 목적으로 변화와 경쟁사회를 중시하는 기관이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KOTRA에서 실시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글로벌기업협력사업, 미래 신성장사업, 무역투자정보지원, 해외진출지원, 지속가능성장사업 등이 있다고 한다.

동남아시아는 특히 국제적 관점에서의 이해가 필요한 국가이고, 특히 미얀마의 경우 중국의 발전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거점의 역할을 하는 국가일뿐더러 다민족국가로 소수민족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고려와 KOTRA의 역할이 필요한 국가라고 한다.

KOTRA의 4가지 핵심가치는 < 고객, 도전, 공헌, 글로벌 > 이다. 국제교류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조언과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해 주셔서 굉장히 즐겁고 유익했던 시간이었다. 또한 자신의 일에 자부심과 사랑이 넘치는 모습은 굉장히 멋있어서 우리 역시 새로운 귀감이 되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다음으로는 아웅산 추모탑으로 이동해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힘써주신 분들과 그들의 희생에 대해 가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 후에는 동양 최고의 황금사원이라 불리는 쉐다곤 파고다에 방문했다. 입구에서부터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운 느낌을 받았고, 역시 맨발과 미얀마 전통 의상인 론지를 입고 사원 안에 입장할 수 있었다. 파고다에 입장하자마자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여태 봤던 그 어떤 건축물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그 크기 또한 압도적이었다. 쉐다곤 파고다는 모두 순금으로 둘러 쌓여있으며 그 꼭대기에는 엄청난 양의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로 장식되어 있다고 한다. 쉐다곤 파고다의 탑은 왕이 바뀔 때마다 한 층씩 늘

어갔으며 그 안에는 석가모니의 머리카락이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쉼다곤 파고다 내에는 자신이 태어난 날의 요일에 따라서 물을 붓고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직접 체험해보기도 했다. 교수님께서 이야기 해 주신 쉼다곤 파고다와 미얀마 불교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롭고 유익했다.



다음은 파옥타지 파고다에 방문했다. 이곳에서 석가모니의 수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과 이것을 나타낸 그림들을 볼 수 있었다. 생로병사를 거쳐 보리수나무의 기원, 석가모니의 수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이드 선생님께서 해 주셨는데 새롭고 재미있는 이야기였다.

그 다음은 마하위지야 파고다에 방문했는데 이곳에는 엄청난 크기의 누워있는 불상이 있었다. 처음 불상을 보자마자 엄청난 크기에

압도당했고, 불상의 발바닥에는 불교 경전의 말씀이 적혀 있었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그 커다란 불상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매우 신기했고 미얀마의 불교에 대한 경외심마저 들었다.

이 날의 점심과 저녁은 각각 딤섬식과 한식이었는데 딤섬은 정말 맛있었다. 처음 먹는 고수의 향기에 놀라기는 했지만 생전 처음 먹는 딤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맛있게 먹었다. 저녁은 오랜만에 먹는 제육볶음과 된장찌개여서 다들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다. 한식 저녁식사를 마친 후 호텔에 돌아와 역시 그날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샤워를 한 뒤 방에 다 같이 모여 교수님들과의 자리를 가진 뒤 잠에 들었다.

V.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의 일정은 마하시 위빠사나 명상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시작했다. 이곳에서는 미얀마의 고승의 수행 모습을 재연해 놓은 마네킹과, 실제 스님들의 공양 행진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스님들의 식사를 관람할 수 있었는데 특이한 점은 이곳 스님들은 우리나라의 스님들과는 달리 고기를 드신다는 것이었다. 가이드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자신이 살생하지 않은 고기는 먹을 수 있다고 한다.

그 다음에는 트라이쇼 탑승 투어를 했다. 여객선을 타고 섬으로 가 자전거꾼이 끌어주는 자전거에 탑승해 섬을 한바퀴 도는 체험을 했다. 바람도 시원하고 풍경도 좋아서 재밌고 색다른 경험이었다.

다음은 차이나 타운에 방문해 점심식사를 했다. 중국식 코스요리가 나왔는데 한국에서 먹던 것과 비슷하면서도 또 새로운 요리와 새로운 맛이어서 맛있게 먹었다.

점심식사 후에는 보족아웅산 마켓에 방문했다. 미얀마에서 큰 마켓중 하나로 손꼽히는데



무려 90년도 더 된 큰 규모의 시장이라고 한다. 미얀마에는 광대한 천연 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나 옥이 유명한데, 보족아웅산 마켓에서 다양한 옥 장신구와 금, 루비, 사파이어 등 많은 보석들을 구경할 수 있었다. 굉장히 아름다운 물건들이 많았고 나 역시 기념으로 옥 팔찌를 몇 개 구매했다. 1~2달러 내외의 굉장히 싼 가격이었지만 굉장히 예뻐서 기뻐다.

보족아웅산 마켓을 다녀온 후에는 미얀마의 백화점을 방문했다. 우리나라처럼 커다란 규모는 아니었지만 마트와 옷, 화장품 등을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저녁식사를 했는데 현지식의 코스요리를 먹을 수 있었다. 식사와 과일후식, 커피 모두 맛있게 먹었다.

저녁식사 후에는 마지막 일정으로 미얀마의 야시장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 커다란 규모는 아니었지만 신선하고 맛있어 보이는 여러 과일들과 해산물, 꼬치요리, 곤충튀김 등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었다. 그 중 두리안과 비슷한 생김새의 잭푸르트라는 과일을 맛보았는데 쫄깃하고 새로운 식감과 맛에 신기했었다.

이렇게 미얀마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공항으로 가 한국에 돌아갈 준비를 했다. 밤 비행기였기 때문에 아침 호텔 체크아웃 시 모든 짐을 챙겨서 나왔었고 우리는 잠시 쉼다곤 파고다의 야경을 본 뒤 공항으로 와서 출국수속을 밟아 비행기에 탑승 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VI. 결론

한국에 도착해서 한국 가이드 선생님과 해외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모든 국제학부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과의 인사를 마치고 헤어져 각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미얀마 여행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덥고 습하고 힘들었지만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었고, 직접 몸으로 체험한 미얀마의 문화와 환경, 착하고 친절했던 미얀마 사람들, 아름답고 화려한 미얀마의 사원 등 여러 가지가 기억 속에 남아있었다.

학교에서 마련해 준 이런 소중한 기회가 아니었다면 평생 가볼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미얀마라는 국가에 대해 경험하고 맛보고, 공부한 것을 분명 값지고 귀중한 양식이 될 것이라 믿는다. 또한 미얀마라는 국가에 대한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것이고, 앞으로도 미얀마라는 국가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